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부



1

옛날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남편과 아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부이고 아내는 주부였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10 년이 되었지만 아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입덧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먹고 싶은 생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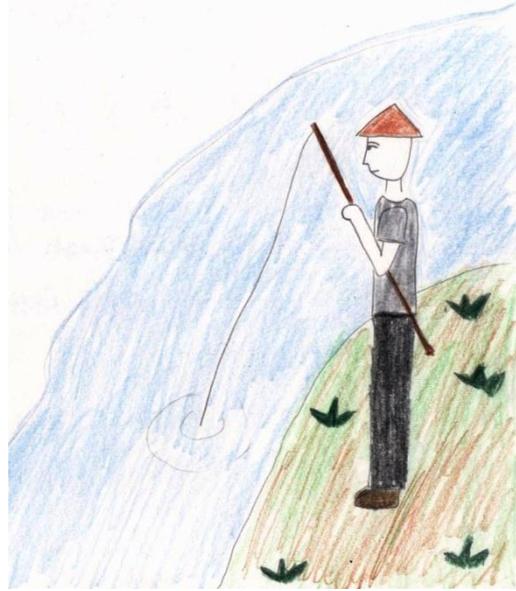
"루마한을 먹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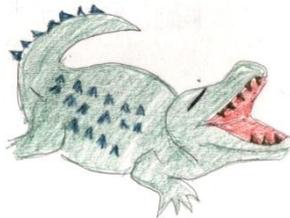
아내의 대답을 듣고 남편이 그 다음 날 새벽에 바다에 가서 저녁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루마한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집에 돌아가서 루마한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루마한 냄새를 맡고 토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먹고 싶은 다른 생선 있어?"

"달락을 먹고 싶어요."



아내의 대답을 듣고 남편이 그 다음 날 새벽에 강에 가서 저녁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달락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남편이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악어가 말했습니다.





"달락을 찾으러 왔어요?"

남편이 아주 깜짝 놀라서 말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달락을 잡아 드릴게요. 집에 가서 키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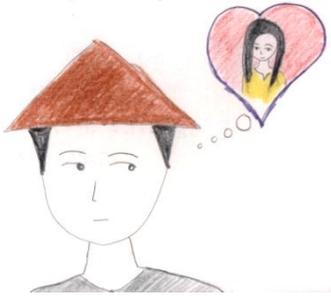
"정말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매달 마지막 날에 저한테 닭 다섯 마리를 줘야 해요."

"네, 알겠어요."



남편은 달락을 먹고 싶어하는 아내 생각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악어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못할 거야.' 하고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악어는 남편에게 달락을 많이 잡아서 주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집에 가서 달락을 구웠습니다. 아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은 강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달락이 없어서 강에 다시 갔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악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하高的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악어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잡아 먹었습니다.



파크리나 12B1281